2018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목 차

Ⅰ. 연수 개요 ····· 2

Ⅱ 방문국가 및 도시 현황 ····· 4

1. 호주연방 ····· 4

2. 뉴질랜드 ····· 6

Ⅲ. 방문지 및 시찰내용 ····· 8

Ⅳ. 공식방문 ····· 16

1. 펜리스시청 ····· 16

2. 로토루아 시의회 ····· 19

3. Daybreak Day Care ····· 23

Ⅴ. 총평 및 연수소감····· 26

1. 총평 ····· 26

2. 연수소감 ····· 29

Ⅰ 연수개요

1. 연수의 목적

○ 호주, 뉴질랜드의 정치, 사회, 문화, 복지 등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특색 있는 제도·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 의원의 글로벌 마인드 강화를 통한 의정역량 강화

2. 방문국가 및 연수기간

○ 방 문 국 : 호주, 뉴질랜드

○ 연수기간 : 2018. 10. 23(화) ~ 10. 30.(화) <6박 8일>

3. 연수 참여자

연 번	소 속	성 명	직위(급)	비고
1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장	
2	강서구의회	박성호	행정재무위원장	
3	강서구의회	이충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4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	
5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6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	
7	강서구의회	김용원	의원	
8	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	
9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	
10	강서구의회	김동협	의원	
11	강서구의회	이의걸	의원	
12	의회사무국	김동영	전문위원	
13	의회사무국	최명규	의정팀장	
14	의회사무국	이옥례	주무관	
15	의회사무국	고영조	주무관	
16	의회사무국	박장현	주무관	
17	의회사무국	신옥현	주무관	

4. 주요일정

일자		장 소	교 통 편	일 정	비 고
1일	10/23 (화)	인천	KE121	○ (16:30) 인천 국제공항 출발	
2일	10/24 (수)	시드니	전용버스	○ (07:20) 시드니공항 도착 ○ 펜리스 시청 방문 ○ 유네스코자연유산 탐방 : 블루마운틴	
3일	10/25 (목)	포트스테판	전용버스	○ 생태환경 현장시찰(OAKVALE) ○ 해양문화 현장시찰(포트스테판)	
4일	10/26 (금)	시드니	전용버스	○ 시드니 도시탐방 - Bondi 비치, 더들리페이지, 갭 파크 맥콰리 포인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5일	10/27 (토)	시드니 오클랜드	JQ 201 전용버스	○ (09:55) 시드니공항 출발 ○ (15:00)오클랜드공항 도착 ○ 오클랜드 도시탐방 : 미션베이	
6일	10/28 (일)	해밀턴 로토루아	전용버스	○ 자연경관 탐방(와이토모 동굴) ○ 로토루아 도시탐방 - 아그로돔, 로토루아 호수, 레드우드	
7일	10/29 (월)	로토루아 오클랜드	전용버스	○ 전통문화 탐방(테푸이아) ○ 로토루아 시의회 방문 ○ 로토루아 양로원 방문 ○ 오클랜드 도시탐방(망거 도메인)	
8일	10/30 (화)	오클랜드 인천	KE 130	○ (10:00)오클랜드 국제공항 출발 ○ (17:55) 인천 국제공항 도착	

Ⅱ 방문국가 및 도시현황

1. 호주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가. 일반사항

국명	Commonwealth of Australia
면적	768만 ㎢(한반도의 약 35배, 남한의 약 80배, 미국 대륙과 크기가 비슷, 유럽의 약 0.8배, 영국의 약 32배) 동.서쪽 간 거리는 약 4,000km, 남.북간 거리는 약 3,200km.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3만 6,735km이다. 호주는 단일 대륙으로는 가장 작은 면적이다
지리정보	호주의 가장 높은 지대는 New South Wales주 Kosciuszko산이다. 가장 낮은 곳은 남호주에 위치한 dry bed of Lake Eyre이며, 해수면보다 15m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본대륙과 타스마니아는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다. 호주 대륙의 약 20%는 사막이며, 가장 낮은 강우량을 보인다.
기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남극을 외하면 가장 건조한 대륙이다.
행정 구역	6州(state)- NSW, QLD, WA, SA, TAS, VIC 2準州(territory)- NT, CANBERRA(ACT)
수도	캔버라
주요도시	시드니(513만명), 멜버른(485만명), 브리스베인(241만명), 퍼스(204만명), 아들레이드(133만명), 호바트(23만명), 다윈(15만명) (2017년 6월)
인구	2,497만 명 (2018년 6월)
민족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언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개 방언)
종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3.1%), 이슬람교(2.6%), 불교(2.4%) 등
정부형태	영연방 입헌군주, 의원내각(양원)

나. 시드니

○ 위 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 면 적: 12,144㎢
○ 인 구: 5,640,000(2018년)

○ 시드니 대도시권은 서쪽 블루산맥, 북쪽 호크스베리강(江), 남쪽 보터니만(灣)까지 뻗어 있으며, 전국 인구의 약 1/4이 몰려 있는 이 나라 최대의 도시이다. 시드니항은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로 오스트레일리아 무역액의 1/4, 뉴사우스웨일스주 무역액의 3/4을 취급한다.

○ 시드니는 온화한 기후로도 유명하며, 연간 평균기온은 21.9℃, 가장 더운 달이 26.5℃, 가장 추운 달이 17.4℃로 연교차가 적다. 연평균강수량은 101mm이며,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다.

○ 1788년 1월 26일, 포트잭슨에 들어온 총독 A.필립은 유형수 770명, 군인 250명을 데리고 이곳에서 최초의 식민지 건설을 개시하였다. 시드니라는 이름은 당시 영국의 각료였던 시드니 경의 이름을 딴 것이다.

○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최대 도시로 문화, 교육 등의 중심이다. 시드니대학(1850년 창립) · 뉴사우스웨일스대학 · 로마가톨릭 교회 · 성공회 교회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 ·국립미술관 ·도서관 등이 있고, 오페라하우스도 1973년에 완성되었다. 또 시내에는 2개의 국립공원(300km2)과 자연보호지 이외에 하이드파크 · 센테니얼파크 등의 공원 ·정원과 각종 경기장이 있다. 또한 포트잭슨만과 남쪽의 보터니만은 경치가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2. 뉴질랜드

가. 일반사항

국명	뉴질랜드(New Zealand) 원주민인 마오리어는 아오테아로아(Aotearoa, 길고 흰 구름의 땅)
위치	남반구 남서 태평양(호주대륙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0km) 해안선: 태즈먼 해, 남태평양(1만 5,811km)
면적	27만 534㎢(남한의 2.7배)(북섬 11만 6,000㎢, 남섬 15만 1,000㎢)
기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16.5도, 7월 평균 8도)
수도	웰링턴(Wellington),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인구	487만 명(2018년 1/4 기준) 북섬에 약 76% 거주
주요도시	오클랜드(153만 명), 웰링턴(45만 명,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7만 명), 해밀턴(15만 명)
인종	유럽인(70%), 마오리(14%), 아시안(11%), 남태평양 도서국(7%), 기타(3%)(2013년)
언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종교	기독교(약 51%), 및 여러 종교 산재
건국일	1840년 2월 6일(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 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 내각(3년마다 총선 실시)
국가원수	영국 Queen Elizabeth II
특수관계	1950년 한국전에 뉴질랜드 군인 6,020명이 참전, 45명이 전사함. 북한과는 2001년 3월 26일 수교했으나, 대사관을 설치하지는 않음.
교민	2013년 인구센서스 결과, 한국 출생 이민자 수는 2만 5,000명이며 뉴질랜드 출생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만 명으로 집계됨. 이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대비 약 0.7%에 해당하며 아시아계 이민자 중 중국(17만 명), 인도(14만 명), 필리핀(4만 명)에 이어 네 번째

나. 오클랜드

○ 오클랜드는 북섬 동부에 위치한 뉴질랜드 경의 중심지로, 약 163만명의 다양한 인종이 모여살고 있는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이다. 뉴질랜드의 GDP 및 임금고용의 3분의 1을 창출하는 오클랜드는 국내 탑 200위에 드는 기업의 60%이상이 소재하고 있다. 오클랜드는 하버브릿지(Harbour Bridge)라는 바다를 가로 지르는 교량을 사이로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 한국 교민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

○ 오클랜드는 살기에 최고의 장소로 세상에서 거주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를 선정하는 [머서]라는 회사의 「퀄리티 어브 리빙 (Quality of Living, 생활의 질) 」조사에서 항상 상위 5위 이내에 들고 있음

○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오클랜드는 와이테마타만과 마누카우만을 사이에 둔 지협이라는 특이한 지리적 조건아래 광대하고 변화무쌍한 해양공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남동쪽으로는 수십 개나 비치가 있고, 800군데 이상의 공원, 원생림, 낮은 후누아산맥이 있고, 서쪽으로는 와이타케리 산맥이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레크레이션의 기회라는 멋진 조합을 즐길 수 있다. 50개를 넘는 휴화산 수가 오클랜드의 풍경으로 점재되어 있다. 최대 휴화산인 랜기토토섬은 오클랜드 최고의 상징적인 지세이다.

○ 오클랜드 도심부의 워터 프런트는 사람을 도시와 바다로 연결하여 오클랜드의 주민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도 함께 즐기는 체험의 장을 공한다. 요트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요트를 빌려서 한가롭게 주변의 섬을 다니기에도 아주 좋다.

Ⅲ 방문지 및 시찰내용

1. 블루 마운틴

-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100km에 위치한 오억년전 부터 형성된 산악지대로 백만ha에 이르는 울창한 숲과 사암절벽, 협곡, 폭포, 미개척 삼림 등이 펼쳐져 있는 국립공원으로 2000년 세계자연 유산 등록되었다. 유칼립투스 잎의 수액에서 흘러나온 푸른 유액이 태양열로 인해 증발하면서 푸른 안개를 시키는 현상에 의해 블루마운틴이란 명칭이 붙음

- 블루마운틴 산맥을 조망 할 수 있는 에코전망대, 원주민의 슬픈 전설이 있는 세자매봉, 산 정상과 산 아래 산책로를 연결하는 경사 52도의 궤도열차, 시닉케이블웨이, 협곡을 횡단하는 시닉스카이웨이, 유칼립투스 나무와 고사리 나무가 울창한 삼림속에서 삼림욕을 할 수 있는 보드워크 등이 있다.

- 호주에 도착해서 자매도시인 펜리스시청을 방문하면서 멀리 성벽처럼 길게 늘어선 블루마운틴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다. 탄광 산업이 한창일 때 석탄을 운반하던 궤도열차를 현대식 계량하여 운영하고, 원시림의 철저한 관리로 훼손하지 않고 관광자원화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블루마운틴 세자매봉



블루마운틴 산림자원 설명

2. 오크밸 동물원

- 오크밸 동물원은 코알라를 가까이서 보고 캥거루 등을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소규모 동물원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웜뱃, 염소,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 유치원 등에서 체험 학습을 나온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눈 앞에서 본 코알라는 기대와 같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3. 포트스테판

- 시드니의 동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약 200km 정도 이동하게 되면 포트스테판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해변과 사막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 약 40km의 황금 해변과 바다 가까이에 있는 사막지대는 환상적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호주의 사막은 호주 내륙지방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지만, 특별하게 이곳에서도 볼 수 있어 신비로운 호주의 자연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경사각도 약 60~70도, 약 25m 길이의 모래언덕에서 해변을 바라보며 타는 모래썰매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포트스테판만의 짜릿한 체험이다.



포트스테판



야생 돌고래

4. 더들리페이지

- 더들리 페이지라는 시드니 외곽에 위치한 언덕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시드니 시티의 멋진 뷰를 바라보는 전망 핫 플레이스이다. 더들리 페이지는 유대인으로 지금의 언덕에 집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의 집에서 보는 시드니의 전경이 매우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과 그 멋진 모습을 공유하고자 집을 허물고, 그의 토지를 국가에 기증했다고 한다. 그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보존한다는 더들리 페이지의 뜻에 따라 드넓은 토지는 인공적인 시설이 없었다. 시드니는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도시로 느껴졌다

5. 갭 파크

- 갭 파크는 시드니 동부 해안에 있는 관광지이자 시드니 항만의 입구로, 시원하게 펼쳐진 남태평양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오랜 세월 침식과 퇴적으로 형성된 절벽바위에 수많은 틈이 생겨 갭(Gap)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며, 수십 미터가 넘는 절벽의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시드니에서 가장 유명한 하버브리지와 오페라하우스 등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다.

6. 시드니타워

- 시드니 타워는 시드니에서 가장 높은 자립 구조의 건축물이다. 1970년 말 공사를 시작하여 1972년 52개의 상점들이 입주하였고, 1974년 사무시설이 완공되어 1981년 8월 대중에 개방되었다. 약 250미터 높이의 전망대에서 시드니 외곽 지역까지 360도 방향으로 전망을 볼 수 있다.

- 시드니 중심가에 위치한 시드니 타워는 시드니의 아름다운 광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뭉게구름이 떠있는 맑은 하늘 아래 푸른 바다와 나무가 어우러진 시드니는 베니스를 떠올리게 했다. 무엇보다 시내 중심가에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듯 하다.

7. 미세스 메콰리 체어(Mrs. Macuarie's Point의 애칭)

- 미세스 매콰리 체어는 시드니의 가장 유명한 경치 포인트로 시드니 대표 명소인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를 양팔에 다 품을 수 있는 곳이다. 미세스 맥콰리 체어라는 이름은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영국에서 파견한 5대 총독인 라클란 맥콰리와 그의 부인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 매콰리 총독이 영국에 가게 되면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 맥콰리 부인은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총독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다. 맥콰리 부인이 앉아서 기다리던 곳이 바로 미세스 맥콰리 체어이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경치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호주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8.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오페라하우스는 시드니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명소로 1959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1973년에 완성되었다. 14년에 걸친 긴 공사와 총 공사비 A$ 1억 200만 달러를 들여 건설된 오페라하우스는 106만 5000장의 타일을 요트모양으로 만든 지붕을 자랑하며, 1957년 호주 정부에서 개최하는 국제 공모전에서 32개국 232점의 경쟁을 물리치고 선발된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우츠가 디자인한 작품이다. 처음에는 건축구조의 결함으로 공사 시작이 불가능하였으나, 1966년부터 호주 건축팀이 공사를 맡아 완성하였다. 내부는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4개의 커다란

홀로 나뉘어져 있으며, 1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오페라극장을 비롯하여 2900명이 들어설 수 있는 콘서트 홀이 있고, 544석의 드라마 극장, 288석의 스튜디오, 400석의 연극무대로 구성되어 있다.

- 오페라하우스의 계단은 그 자체가 훌륭한 건축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길게 늘어선 계단이 또 하나의 광장처럼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계단에 앉아 넓은 광장을 가득한 관광객들과 주변의 멋진 풍경을 보면서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느꼈다. 오페라하우스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배치하여 부근에는 자동차를 볼 수 없는 것도 오페라하우스가 세계적인 관광지임에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간직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 생각한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하버 브릿지

9. 와이토모 동굴

- 마오리어로 '구멍을 따라 흐는 물'이라는 와이토모는 해밀턴 남쪽으로 80km 못 미쳐 위치하며 수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석회 종유굴이다. 와이모토 동굴은 세계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와이모토 동굴에 서식하는 개똥벌레의 일종인 '글로우웜(GlowWorm)'이 밤하늘의

은하수를 연출하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동굴의 보호를 위해 관광객에게는 빛과 소음을 차단하고 모든 자연물은 접촉을 금지하며 동굴 속의 보트는 무동력으로 인력에 의해 운행하는 등 관광지의 보존에 심혈을 기울인다.

- 동굴의 중앙에 커다란 성당을 연상케 하는 넓고 높은 공간에서 울리는 아리랑 합창에 주변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큰 박수를 보내 주었다. 관광객들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동굴의 아름다운 울림을 경험한다. 글로우웜이 만들어준 작은 우주는 자연의 신비와 감동을 느끼게 한다.

10. 아그로돔

- 아그로돔은 낙농국가 뉴랜드 전형적인 농장 모습을 체험 할 수 있는 곳으로, 로터루아 시가지 북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1972년에 조성되어 160ha 이르는 넓은 면적에 19종의 양 뿐만 아니라, 양몰이개, 염소, 알파카, 타조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농장이다. 또한 트랙터를 개조하여 트레일러(개방식)를 부착하여 방문객을 태워서 농장 내부를 돌아보며, 양, 알파카, 소 등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관광을 운영하고 있고 있다.

- 우리 일행을 안내한 가이드는 우리나라 청년으로 얼마 전 영주권을 받았다고 한다. 멀리 타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11. 레드우드

- 레드우드(The Redwoods)라 불리는 수목원은 로토루아 시내에서 5분

거리인 와까레와레와 숲을 일컫는다. 산책로는 비지터 센터에서 시작하며 루트가 6개로 나뉘어 있어 자신에게 알맞은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산책로에서는 말이나 바이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보다 한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레드우드 삼림욕장의 주된 수종은 메타세콰이아로서 수고는 60m에 달하며 이곳 나무는 개량종으로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하여 목재로서의 상품성을 갖추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12. 테푸이아 지열지대 및 마오리 민속마을

- 테푸이아는 로토루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지열지대이며 동시에 마오리족의 문화 공간임. 마오리 족의 언어로 하면 이름이 와카레와레와가 된다. 와카레와레와에 있는 가장 멋진 간헐천은 포후투이며, 포후투 간헐천은 대게 한시간에 한번 꼴로 분풀하는데 높게는 그 높이가 20~30m에 이르기도 함. 또한 머드팩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열로 인해 끓어 오르는 진흙풀도 볼만함. 이 곳에는 뉴질랜드의 천연기념물이자 상징인 키위새를 볼 수 있는 키위하우스도 존재한다.

	
마오리 전통 배	머드 풀

13. 로토루아 스카이라인 곤돌라

- 아름답고 평화로운 로토루아 호수와 그 한가운데 떠있는 모코이와 섬 그리고 로토루아의 빛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곤돌라는 로토루아의 명소이다. 로토루아 호수는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분화구라고 한다. 로토루아 호수의 지하와 주변지역에는 지금도 지열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가”의 배경이 바로 모코이아 섬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로토루아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



로토루아 호수



로토루아 시내

Ⅳ 공식방문

1. 펜리스시청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8. 10. 23. (수)
○ 장　　소 : Penrith Civic Centre, 601 High St, Penrith NSW 2750 Australia
○ 면 담 자 : Ross Fowler(시장), Warwick Winn(general manager)

☐ 세부 방문내용

○ 오스트레일리아 남부 중심 도시인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진 펜리스시는 블루마운틴 자락에 위치한 아늑한 도시로, 주요 산업은 축산과 낙농이며, 펜리스 밸리를 끼고 있어 다이나믹한 래프팅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속하며, 면적은 404.9㎢, 인구는 19만 6,066명(2016년)임

○ 행정조직은 5개 국이 있으며, 공무원 수는 약 1,800명이고 시장은 시의원 중에서 호선함

○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33, 중등학교 15, 대학교 1, 전문 및 대학원 2개가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조안서덜랜드 무대예술센터, 소방대박물관, 시드니국제 레가타센터(조정경기장), 야생동물원, 펜리스 화이트워터(카누경기장)가 있음.

▢ 질의 및 답변

Q1. 대한민국은 65세의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펜리스 시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A1. 펜리스시도 고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는다. 펜리스시가 성장하고 있어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어 고령인구 비율은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Q2. 펜리스시의 요양시설 현황은?

A2. 노인 요양시설에 관한 업무는 시의회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다. 펜리스시의 경우는 교회나 민간단체가 예산 지원을 받아 요양시설을 운영한다.

Q3. 펜리스시에 거주하는 한국 유학생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A3. 펜리스시는 시드니 도심과 거리가 있어서 한국 유학생을 보기 힘들고, 시드니 중심부에서는 한국 유학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Q4.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가까운 장래에 인구 감소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펜리스시의 출산율은 얼마인가?

A4. 펜리스시는 호주인이 1~2명의 자녀를 낳은데 비해 이슬람권 출신의 출산율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민자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Q5. 펜리스시의 시장 선출 방법과 의원 및 시장의 임기는?

A5. 펜리스시는 시의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시장을 선출하고,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시장은 2년이다.

Q6. 호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한과 독립성은?

A7.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등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주정부는 보건, 치안, 고등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도로관리, 공원관리, 도서관 건립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로 동등한 관계로 독립성이 보장된다.

Q8. 펜리스시와 시드니를 연결하는 지하철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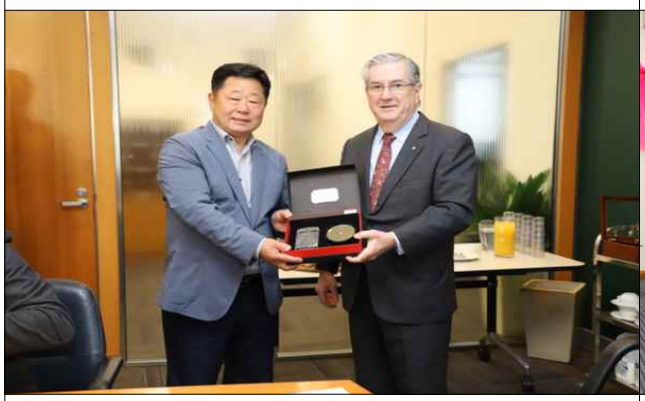
A8. 시드니와 펜리스시는 거리가 멀어 지하철이 없고 지상으로 기차가 운행한다.

☐ 시사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의 복리를 위해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하고 협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논의되어야 함.

○ 노인을 위한 복지도의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중요함. 복지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해 참여를 높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 펜리스시청을 방문했을 때 유방암 재단 후원을 위한 '핑크업' 행사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 행사가 차분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음. 각 행사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차별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외형보다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것임.

<table>
<tr><td></td><td></td></tr>
<tr><td>김병진 의장 방문 인사</td><td>Ross Fowler 시장과 질의 답변</td></tr>
<tr><td></td><td></td></tr>
<tr><td>방문 기념선물 교환</td><td>펜리스시의회 회의실</td></tr>
</table>

2. 로토루아 시의회 [Rotorua Lakes Council]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8. 10. 29. (월)

○ 장　　소 : 1061 Haupapa Street, Rotorua 3010 New Zealand

○ 면 담 자 : Mark Gould 시의원

▢ 세부 방문내용

○ 로토루아는 뉴질랜드 북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여, 오클랜드에서 남쪽으로 234km, 웰링턴에서 457km의 거리에 있으며 오클랜드에서 자동차로 3시간, 비행기로 45분이 소요됨. 대규모 버스회사의 대부분이 로토루아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버스 이용이 편리함.

○ 로토루아는 표고는 약 297m으로 평균 기온이 여름에는 20~27도, 겨울에는 10~12도로 온화한 기후가 계속된다. 연중 강수량은 균일하며, 우기 등이 없기 때문에 일년 내내 관광하기에 좋은 날씨가 계속됨.

○ 마오리족의 전통 문화와 빼어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결합하여 세계인이 선호하는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질의 및 답변

Q1. 로토루아 시의회의 구성과 시의원 선출방법은?

A1. 시장과 10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고, 3년마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됨

Q2. 뉴질랜드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권한과 관계는?

A2. 뉴질랜드는 12개의 광역단체(Regional Councils)와 기초자치단체(Territorial Authorities), 7개의특별자치단체가 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수직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이다. 광역단체는 주로 전염병과 유해 식물 통, 항만관리와 바다오염 통, 민방위, 교통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쓰레기, 소음통, 공원 관리, 도로보수, 건축허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Q3. 로토루아 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3. 로토루아 관광산업의 바탕인 자연환경 보호 등 시정에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강화하고 있다.

Q4.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거리가 깨끗하다. 쓰레기 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A4.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 처리 업무를 민간회사나 민·관 합작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행정서비스에 경쟁체을 도입하여 많은 행정 서비스가 이관되어 공무원 수도 줄이고 행정비용도 절감하고 있다.

Q5. 로토루아시가 어르신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한다면?

A5.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노인클럽활동 지원과 요일별 특화된 할인으로 어르신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버스 요금 할인을 위한 골든카드 운영과 거주지원, 연금지급 등이 있다.

Q6. 노인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를 소개하면?

A6. 뉴질랜드에서는 노인들이 가능하면 본인이 평소 생활해 왔던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주택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일을 돕는 가정지원 서비스(Home support services)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전문요양 시설(Residential care), 일일프로그램(Day activity/care), 간병인 지원(Carer Support) 등의 제도가 있다.

Q7. 로토루아시의 역점 사업은?

A7. 건국의 역사가 짧은 뉴질랜드로서는 마오리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중요시하며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보호하는 정책(국회의원 원주민 할당 등)을 펼쳐 원주민과 함께 발전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나라 특성에 맞게 농장관련 사업과 관광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마오리는 뉴질랜드 전체인구의 15%정도를 차지하며, 정부에서 마오리부족 보존에 힘쓴 결과, 마오리족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시사점

○ 우리 방문단을 맞이하고 면담한 로토루아 시의회의 Mark Gould 의원은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로토루아시를 소개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었다.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뉴질랜드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위한 정치, 경적으로 다양한 도를 시행하여 비원주민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 점차 증가하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족을 배려하고 다문화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뉴질랜드는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아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민자에게 관대한 나라로 최근 화교 자본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음. 연수를 하면서 뉴질랜드로 건너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국 청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음.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table>
<tr><td></td><td></td></tr>
<tr><td>로토루아 시의회 소개</td><td>질의 및 답변</td></tr>
<tr><td>
</td><td></td></tr>
<tr><td>Mark Gould 시의원과 환담</td><td>방문기념 선물 교환</td></tr>
</table>

3. 로토루아 복지시설 - Daybreak Senior Day Care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8. 10. 29. (월)

○ 장　　소 : 69 Lake Road Ohimemutu West 깨새겸

○ 연 락 처 : +64 (07) 349 6633

○ 홈페이지 : https://www.eldernet.co.nz/Facilities

▢ 세부방문 내용

○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까지이며, 숙련된 직원이 다양한 개인 돌봄 서비스를 공하고 있음

○ 매일 아침 직원이 자동차로 30~40분의 어르신을 시설로 모셔오고 있으며 적절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함.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식사를 공하고 있음

○ 보드게임, 카드, 그룹 게임 또는 미술과 같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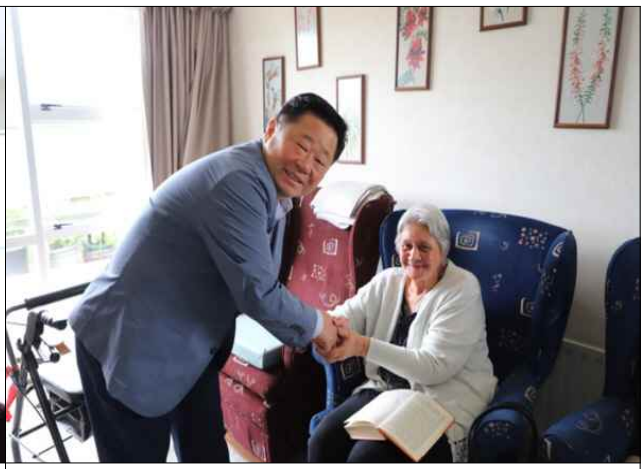
○ 개인 돌봄 서비스로는 간호서비스, 미용, 자연건강 치료법, 샤워 등이 있으며 전문분야로는 당뇨병 관리, 치매 관리 등의 서비스를 공하고 있음

▢ 시사점

○ 연수단이 방문했을 때 마침 어르신들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간식을 드시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 두 분이 큰 절을 올려 큰 박수를 받음. 음식을 드시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으나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어르신들께서 환하게 웃으심. 어르신 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진심이 깃든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함

○ 복지 분야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지역사회 민간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자원봉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세대간의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복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함

○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간에 노인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함

	
질의 및 답변	시설 이용 어르신과 인사
	
어르신들게 큰절(이의걸, 강선영 의원)	작별 인사

V 총평 및 연수 소감

1. 총 평 (김병진 의장)

- 매년 봄에 떠나던 공무국외여행이 올해는 상반기에 실시된 지방선거로 연기되어 가을에 출발하게 되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불구하고 연수 준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연수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지방자치, 복지도, 관광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자매결연 도시를 포함하여 호주와 뉴질랜드의 도시와 세계적인 관광 명소 등을 방문하여 상호 이해와 우애를 다지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을 보냈다.

-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현실과 대조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맑고 청정한 공기를 자랑하고 있었다. 지리적 환경의 이점도 있지만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그 바탕에 자리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시드니에서 펜리스시로 가는 고속도로의 확장공사를 우리 기업이 수행하고 있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동안 자동차, 전자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한국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마곡산업단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도약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에서도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노력하여야 함.

- 뉴질랜드는 출산과 양육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건강과 교육 그리고 노후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통해 미래 세대를 키우고 국민이 삶의 여유를 누리고 있음. 미래에 대한 안전망이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옴. 우리나라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

- 건강관리에 관하여 사후 치료 지원보다는 예방적 의료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희귀질환에 대하여 개인의 부담 없이 국가가 치료에 관한 비용을 전부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많은 희귀질환 환자가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고 하니 우리 구의 메디컬 특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호주와 뉴질랜드는 숲과 나무가 잘 가꾸어져 공기가 쾌적하고, 거리에는 쓰레기, 불법 광고물과 노점상을 볼 수 없었으며 눈을 어지럽히는 요란한 간판도 거의 없었음. 국민들의 환경 보호 정신과 법과 질서를 지키는 문화가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임. 우리나라도 개인적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와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함

-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녁 7시 이후에는 거리에서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금요일 오후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카페 등에 모여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장시간 직장에 있으면서도 노동 효율성은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어느 정치인의 구호처럼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어야 아이도 낳고 양육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됨.

- 호주와 뉴질랜드는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건강을 지키고 삶의 여유와 활력을 얻고 있었다. 우리 구의 서울식물원이 호주의 로얄 보타닉가든처럼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함.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건축물 그 자체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매력이 있었다. 하지만 맥쿼리포인트, 로얄보타닉파크, 하버브릿지, 넓은 광장과 바다 등이 오페라하우스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고 있었다. 우리 구에는 양천향교, 허준박물관 등이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관광객이 찾을 만큼의 영향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식물원과 궁산, 양천향교, 한강 등을 연결하여 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서 철저한 입국심사를 경험하였다. 뉴질랜드의 청정 자연과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뉴질랜드 정부의 집념과 불편함을 인내하는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 뉴질랜드가 환경 선진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6박 8일의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연수에 참여해 주신 연수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고 새로운 의정활동의 에너지를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2. 연수소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직 위	위원장	소속 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성 명	박성호
여행국	호주, 뉴질랜드		여행기간	6박7일	

① 주요 방문지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

○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재난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와 관련된 인력은 누구나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위험 시설에 대한 접근을 막는 표지판도 이중으로 세심하게 설치하는 모습에서 시민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문화를 볼 수 있었다.

○ 우리나라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비해 호주나 뉴질랜드는 과속방지턱을 찾기 어려웠다.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에만 속도를 줄이는 우리 교통문화와 달리 여유있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② 강서구 구정 및 의회 운영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정책건의

○ 우리나라의 축제를 보면 그 형식과 내용이 비슷하고 먹거리 위주의 행사가 대부분이다. 축제에 음식이 빠지기는 힘들겠지만 음식 코너의 비중을 줄이고, 쓰레기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메뉴 선정과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허준축제나 각종 마을행사에서도 축제의 주제에 맞게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 호주의 경우에는 간판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가게보다 큰 간판을 달고 영업하거나 이동식 간판을 거리에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도시미관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③ 기타 사항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직 위	의원	소속 위원회	도시건설	성 명	김 동 협
여행국	호주 , 뉴질랜드		여행기간	10월23-10월30일	

① 주요 방문지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

1. 호주 펜리스시티 시청 방문

2. 뉴질랜드 로토루아시의회 방문, DAY CARE 방문

② 강서구 구정 및 의회 운영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정책건의

1. 뉴질랜드 로토루아는 43%의 농장과 41%의 숲, 8%의 호수로 이뤄진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이다. 천혜의 자연을 기반으로 마라톤 대회, 국제 경마 대회, 머드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럭비, 산악자전거,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를 결합해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2. 강서구도 이런 점을 벤치마킹하여 강서구의료관광특구 사업에 결합하여 의료사업뿐만 아니라 구민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기타 보고사항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직 위	의원	소속 위원회	도시건설	성 명	이 의 걸
여행국	호주 , 뉴질랜드		여행기간	10월23-10월30일	

① 주요 방문지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

1. 호주 펜리스시청 방문

2. 뉴질랜드 로토루아시의회 방문, Daybreak Day Care 양로원 방문

② 강서구 구정 및 의회 운영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정책건의

○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호주보다 10년 정도 앞선 만큼 호주의 펜리스시의 인구 증가로 전문병원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 우리 강서구 의료관광특구 사업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더 많은 의료 혜택이 퍼져 나가도록 기대함

③ 기타보고사항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직 위	의원	소속 위원회	보건복지	성 명	황 영 호
여행국	호주 , 뉴질랜드		여행기간	10월23-10월30일	

① 주요 방문지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

○ 펜리스시의회에서는 강서구 의원들을 환영해주고 펜리스시의 사업추진과 시책을 성실하게 브리핑 하였음. 펜리스 시청의 소박한 행사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로토루아시는 인구 약 8만 명이 살고 있는 중소도시이다.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자원이 풍부한 도시이다. 로토루아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브리핑해 주었으며, 자상하고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로토루아에 있는 주간 요양시설인 Daybreak Senior Day Care를 방문하였는데 시설은 소박하면서도 깨긋했다. 어르신을 섬기는 요양사들을 보니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이것이 복지국가이구나 실감하였다. 어르신들의 밝은 모습, 행복한 모습이 인상적이며 강서구 의원 두 분이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올린 큰절에 환하게 웃으시며 즐거워 하셨다.

② 강서구 구정 및 의회 운영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정책건의

○ 펜리스시의 시장이 직접 나와 펜리스시의 시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과 소박한 행사 진행을 보면서 형식보다는 내용에 우선하는 실용적인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낌

○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함.

③ 기타보고사항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직 위	의원	소속 위원회	행정재무	성 명	이 충 현
여행국	호주 , 뉴질랜드		여행기간	10월23-10월30일	

① 주요 방문지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

1. 호주와 뉴질랜드는 광활한 토지를 보유해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정책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호주는 대한민국 면적의 77배 수준이다.)
2. 1차 산업(목축), 관광산업에 주력하고 제조업체가 거의 없어 환경오염이 없는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3. 이민국가이지만 치열한 다툼이나 분쟁, 시위가 없음
4. 퇴근시간 이후 일찍 귀가해 가족과의 삶을 우선시 하는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5. 일용직의 보수가 높은 수준임.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행태)
6. 호주의 펜리스시, 뉴질랜드의 로토루아시의회를 방문하여 질의·응답의 기회가 있었는데, 시장, 의장 등이 무척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이었고, 무엇보다 회의 탁자가 원탁이어서 관료주의적 색채가 없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음

② 강서구 구정 및 의회 운영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정책건의

1. 회의탁자는 가능한 원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음
2. 의원, 구청 공무원 모두 좀 더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를 견지 필요
3. 중앙정치(국회 등)와 관련된 선거제도 개선 필요
   - 한국은 지방선거는 단체장, 의원을 따로 선출하지만 호주 Penrith City의 경우 의원을 선출한 후 그 중에서 시장을 선출하고 있는 바 한국도 이러한 선거제도를 참조, 연구하여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강서구도 각종 인허가시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할 필요 있음 (강서구 환경과 업무 참조)

③ 기타보고사항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직 위	의원	소속 위원회	보건복지	성 명	김 용 원
여행국	호주 , 뉴질랜드		여행기간	10월23-10월30일	

① 주요 방문지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

○ 호주와 뉴질랜드는 주변이 매우 깨끗했으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 겨울이 없는 나라이므로 농작물 부산물이 적고, 식물과 나무의 낙엽이 없다.
-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매우 적다.

② 강서구 구정 및 의회 운영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정책건의

○ 글로벌 시대에 즈음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애정·배려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③ 기타보고사항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직 위	위원장	소속 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성 명	강선영
여행국	호주, 뉴질랜드		여행기간	6박7일	

① 주요 방문지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

○ 호주에는 수직의 지지대 위에 바로 신호등을 설치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수직의 지지대 상부에 다시 수평방향의 지지대를 연결하여 신호등이 차선 가운데에 오도록 하는 우리나라와 다름.

○ 오클랜드는 항해의 도시(City of Sails)라는 별명답게 요트나 보트 등 소형 선박의 등록 수는 약 14만척으로 인구 대비로는 세계 최대이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3가구당 1가구의 비율로 소형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오클랜드에서는 카약,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 극장, 콘서트 등을 통해 각종 문화를 접할 수 있음. 해안 크루즈나 근처 섬들로 이어지는 선상 여행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② 강서구 구정 및 의회 운영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정책건의

○ 호주처럼 수직 지지대에 바로 세로형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우리나라의 경우 신호등이 차선의 중앙에 위치하여 운전자의 신호 확인을 수월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중에 있으므로 도시미관을 해침.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버스 중앙차선이 없는 도로에는 중앙분리대 위치에 세로형 신호등을 설치하면 도시미관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에는 아름다운 한강이 있다. 하지만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이 시민들의 한강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음. 오클랜드에는 많은 시민들이 요트를 통해 바다를 즐기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마곡식물원과 연결되는 요트시설을 건설한다면 주민들의 여가활용과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③ 기타 사항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직 위	의원	소속 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성 명	송순효
여행국	호주 , 뉴질랜드		여행기간	10월23-10월30일	

① 주요 방문지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

오스트레일리아

수 도 : 캔버라(Canberra)
면 적 : 7,741,220km²(한반도의 약 35배)
인 구 : 2,500여만명
민 족 : 유럽계(85%), 아시아계(9%), 원주민(3%), 아랍계(14%)
언 어 : 영어(English)
종 교 : 카톨릭(26.4%), 성공회(20.5%), 그리스도교(20.5%)

호주는 6개 주와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정확한 국가 명칭은 Commonwealth of Australia) 인구는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빅토리아(Victoria), 퀸즐랜드(Queensland), 서호주(Western Australia), 남호주(South Australia), 태즈메이니아(Tasmania)순이다. 호주는 해안을 접해서 도시들이 발달했는데,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Sydney)로 인구가 약 500만이 넘고, 인구 320만의 멜버른(Melbourne), 인구160만의 브리즈번(Brisbane)이 그 뒤를 잇는다.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Canberra)로 정확한 명칭은 ACT(Australian Capital Teritory)로 인구는 31만명 정도이다. 수도인 캔버라의 인구가 적은 이유는 행정수도의 목적으로 신설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지형- 총면적의 90%이상이 사막이나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도시들은 해변가의 수목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고도는 300m이다.

기후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계절이 한국과 정반대이다. 봄은 9 ~ 11월, 여름은 12 ~ 2월, 가을은 3 ~ 5월, 겨울은 6 ~ 8월이며, 여름은 우기로 평균기온은 27℃, 겨울은 건기로 13℃의 평균기온을 나타낸다. 전체 대륙이 남위 10.41° ~ 43.39°에 걸쳐 있어 여러개의 기후대를 가지고 있으며, 북쪽에서부터 열대 우림기후, 열대성기후, 아열대성기후, 온대성기후로 나뉘어진다. 대륙의 중앙부는 사막성 기후를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건조하며 일교차가 크다.

정부-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현재까지도 국가형태가 형식상 입헌군주제의 영국 여왕을 수장으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 6개 주정부는 총독(Governor)이 대표하고 있다.

통화- 호주 달러를 사용하며, A$로 쓴다. 지폐는 $100, $50, $20, $10, $5의 5종이 있으며 주화로는 $2, $1, 50¢, 20¢, 10¢, 5¢, 1¢가 있다. 호주준비은행은 은행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2년 7월부터 종이 대신 폴리머(플라스틱 재질)로 발행하여 제조비용이 다소 많이 들지만, 위조가 어렵고 내구성이 강하며 청결성도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번 접히면 잘 펴지지 않고 열에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전압- 230-250볼트/ 50사이클이며 교류 플러그는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본인이 소유한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전압이 이와 다를 경우에는 트랜스와 어댑터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된다. 대개 매우 민감한 전자제품이 아니면 한국에서 사용하던 220볼트용 제품도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현지생활을 위하여 새로이 전자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Free Volt용 전자제품(100V, 220V, 240V 등 전압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기 바란다. 호주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플러그만 맞추면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플러그의 경우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의 220볼트 및 플러그의 형태에 관계없이 용이하게 호주 콘센트에 끼워 쓸 수 있는 어댑터를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교민현황 : 약 10만여명, 유학생 약 22천명 포함, 약 70% 이상이 시드니 중심의 NSW주 거주한다.

한국과의 관계

한국전 참전(육군 2개 대대, 해군함정 3척, 공군 1개 전투기대대)하여 총 17,000여 명 중 339명이 전사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의 9대 교역국이자 6대 수입시장이며,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의 4대 교역국이자 3대 수출시장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3대 수출시장(일본, 중국, 한국 순)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어 동북아의 평화·안정 유지(북핵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의회(Parliament)-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 시스템의 핵심으로서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에 동등한 권한을 배분한다. 하원은 영국처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구성하고, 상원은 미국과 같이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에 대한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의 권한을 갖고 있다. 총독의 권한에 따라 의회가 소집, 정회, 해산할 수 있다. 의회는 행정부를 구성하며, 입법 활동, 정부예산 의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행정부의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연방의회에서 논의된 법안은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된 후, 총독이 승인해야만 법으로 성립된다. 세입과 조세에 관련된 법안의 경우 반드시 하원에 먼저 제안되어야 하고, 그 외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서든 먼저 제안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원의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6개 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구 숫자와 상관없이 각 주에서 12명씩 선발되고, 연방직할 2개의 자치구인 '오스트레일리아수도지구(ACT)1)'와 '북부자치구(Northern Territory)'에서는 각 2명씩 선출하여 모두 76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정원의 절반이 선거로 새롭게 선출된다. 수도지구와 북부자치구 등 자치지구 두 곳의 상원의원 임기는 3년이다. 상원의원 선거는 대선거구와 비례투표제도에 따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군소정당에서도 의원이 선출될 수 있다. 이들은 시대적· 지역적 여론의 흐름을 더욱 많이 반영함과 동시에 주요 정당 간의 세력균형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설정된 선거구에서 뽑는 15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의 증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하원의원은 주요 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도'와 '선호투표제도(Preferential Vote)'에 따라 선출된다. 선호투표제도란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 모두에 대해 우선 순위를 기재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에 따라 의회에서 다수당이 분명하게 형성되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에 정당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주요 법안과 정책 심사 등 의회의 주요 기능들이 여당과 야당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결과 토론, 그리고 표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하원의 경우,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내각과 제1야당 당수를 중심으로 하는 음영내각(Shadow Cabinet) 간의 정책대결 토론 형식이 이루어진다. 의사당에서 정부의 내각이나 음영내각 각료들 뒤편에 앉는 평의원을 '백-벤처(back-bencher)'라고 하는데, 주로 초선 또는 재선의원들로 구성된다. 평의원들은 핵심 당직이나 정부의 각료직은 맡지 않는다. 주요 안건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의원들은 대부분 당의 의사에 따라 표를 행사한다. 간혹 평의원인 백-벤처들이 상대 진영에 표를 던지는(Cross the floor, 반대편에 찬성하는 행위)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백-벤처들이 특정 법안이나 정책과 관련하여 자당 지도부와의 협상 수단으로 이반 가능성을 위협하는 일도 벌어진다.

호주의 투표율은 97%로 평균적으로는 항상 90%을 넘는다고 한다. 이유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투표를 안 할 경우 에 A$20의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펜리스시와 시의회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펜리스시는 인구 17만 규모의 도시이다. 시의회는 지방 정부로 주로 도시 계획 및 건축 허가, 도서관, 지역사회 시설, 공원 및 특별보호구역, 쓰레기 및 재활용 서비스, 도로 인도 및 수목, 식품안전 및 축제, 행사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펜리스시는 시장과 시의원들에 의해 운영된다. 지방정부의 권한은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고루 분산되어 있다. 즉, 중요한 의사결정 시 시장의 권한은 시의원 개인과 마찬가지로 1표의 의사결정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시장 역시 시의원들 중 한 사람이 대표 격으로 선출되고 있다.

펜리스시는 지방정부연합체(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를 구성하고 있다. ALGA는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의 정책에 조율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체 지방정부의 요구 사항과 정책안을 주 정부 혹은 연방 정부에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펜리스시는 시드니 주변 대도시권이라는 입지적 조건과 지역적 자원을 통해 나름의 지역개발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지역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화된 전략을 통해 산업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펜리스시는 다음과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되 첫째 지역주의(regionalism) 및 지역적 경쟁우위(regional competitive advantage)정책, 둘째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는 정책, 그리고 지역적 문제(local problems)에 대한 지역적 해결(local solutions), 셋째 촉진(facilitation), 파트너십, 자조의 풍조(self-help ethos), 넷째 지역전략을 추동하는 새로운 중범위(meso) 수준의 조직을 키워내는 것이다. 곧 지역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새로운 산업보다는 기존 사업체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끝없는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지원 지역개발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블루마운틴

호주의 그랜드 캐넌이라고 불리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은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약 1,000m대의 산맥을 뒤덮은 유칼립투스나무에서 증발된 유액이 햇빛에 어우러져 빚어내는 푸른 안개현상으로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블루마운틴이 웅장한 자연풍경을 자랑하는 지역이지만 지금의 관광산업이 자리잡기 전까지는 석탄을 생산하는 광업이 이 지역의 주요 사업이었다. 블루마운틴에는 시닉월드 (시닉 레일웨이&시닉 스카이웨이&시닉 케이블웨이)가 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스카이웨이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52도)를 운행하는 관광열차인 레일웨이가 있으며, 계곡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케이블웨이, 폐광지대 계곡에 조성해 놓은 워크웨이가 있는데 당시 석탄운행을 위해 설치한 레일을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객들이 열차를 타고 블루마운틴 계곡으로 올라가 약 2km 구간을 산책할 수 있다. 스카이웨이(좌우로 움직이는 케이블카)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있어서 세자매봉과 카툼바 폭포와 블루마운틴의 전경 감상이 가능하다. 마술사 아버지가 마왕의 손길에서 세 딸을 구하기 위해 돌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일어버린 마술지팡이를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슬픈 전설을 지닌 세자매봉과 블루마운틴의 전경은 에코포인트에서도 잘 보인다. 블루마운틴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시드니 타워전망대

약 250m 높이의 전망대에서 시드니 외곽 지역까지 360도 방향으로 전망을 볼 수 있다. 시드니의 랜드마크 중 하나 시드니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빌딩 중 하나로 꼽히는 건물로 지진과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56개의 케이블이 타워를 안정

되게 잡아줘서 안전하다. 4D 시네마 체험을 한 후 고속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시드니 타워 전망대 서쪽으로는 서부 거주지가 선명하게 보이면서 블루마운틴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또한 북쪽으로는 하버의 복잡한 해안선이 자세하게 보이며, 남쪽에서는 시드니 공항을 볼 수 있고 동쪽에서는 해변의 플레이그라운드를 볼 수 있고 그 너머로는 거대한 태평양이 펼쳐진다.

랩타일 파크 동물원

랩타일 파크(Reptile Park)는 "파충류 동물원"이라는 뜻이다. 입구에 목도리도마뱀 모형이 있다. 악어, 거북이, 웜뱃, 테즈메니아 데블, 에뮤 등을 볼 수 있고 호주의 마스코트 코알라를 만져볼 수 있으며 캥거루에게 먹이도 줄 수 있다.

포트스테판 샌드보드

40Km의 끝없이 이어진 아나베이 바닷가와 퇴적현상에 의해 이루어진 높이 30m 경사 60~70도 모래언덕으로 4륜구동 차량으로 이동해 언덕에서 썰매를 탈 수 있다.

오페라하우스

국제공모전에서 당선된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웃손이 설계한 것으로 14년간의 공사를 거쳐 1973년에 완공되었으며, 1억20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었다. 조가비모양의 지붕이 바다와 조화를 이루어 건물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오페라하우스는 2679석의 콘서트홀, 1547석의 오페라 극장, 전시장, 도서관, 연습실 등을 두루 갖춘 복합건물로 시드니는 물론 오스트레일리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시드니항과 어우러져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오페라하우스는 2007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하버브릿지

시드니 중심상업지구와 북쪽해변 사이의 시드니항을 가로지르는 주 교량으로 인접해있는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시드니의 상징물이다. 총 공사비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923년에 건설하기 시작해 1932년에 완공되었으며 1920년대에 불어 닥친 경제 대 공황을 타계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설되었다. 24만원을 내면 몸에 줄을 매달고 하버브릿지의 아치 꼭대기를 직접 도보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브리지 클라임도 체험할 수 있다. 비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색체험과 시드니의 멋진 전경을 볼 수 있어 매년 수십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다.

맥콰리포인트

맥콰리 부인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영국의 식민지 시대 때 보고 때문에 영국으로 건너간 매콰리 총독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기다린 곳으로 하인들이 돌을 깎아 의자를 만들어줬다는 전설을 가진 곳으로 오페라하우스와 허버브릿지가 잘보인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
면적: 270,692㎢로 한반도의 1.3배, 전 국토의 54%가 목초지
인구: 460만 여명
민족: 유럽계 아시아계 마오리족 폴리네시아인 등으로 구성
종교: 성공회, 가톨릭, 개신교
언어: 영어와 마오리어

'길고 흰 구름의 나라'라는 뜻인 '아오테아로아(Aotearoa)'로 불리는 뉴질랜드는 태고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국가이다.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은 얼음으로 이루어진 산, 강, 깊고 맑은 호수, 그리고 문명에 때묻지 않은 넓은 휴양림과 길게 뻗은 해변, 국가를 상징하는 새 키위와 다양한 여러 동물들로 어우러져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레포츠인 하이킹, 스키, 래프팅, 번지점프 등으로서 더욱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다.

사회- 뉴질랜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있으며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보조를 해주는데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 후 24개월이 지나야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노후연금은 만 64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장애수당, 가족수당, 생활보조수당 등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들은 주로 양로원에서 지내며 노후연금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직업보조수당 등이 있고 학생, 청소년, 실업자, 장례식, 병자 등을 위한 수당 등이 있다.

지리- 남위 34도~47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 길이는 약 1600Km이다. 쿡해협(Cook Strait)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주와는 태즈먼해(Tasman Sea)를 사이에 두고 약 2,250km 떨어져 있다.

기후-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정반대의 기후로 남반구의 온대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해양성 기후로 기온차가 심하지 않다. 날씨가 자주 바뀌기는 하나 전국에 걸쳐 일조량과 강우량이 충분하다. 여름에는 아열대성 기후가 되고 겨울에는 남섬의 남부 알프스에 눈이 많이 내린다. 1년중 가장 무더운 때는 1~2월이며 가장 추운 때는 7~8월이다. 폭우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 여행에 큰 무리는 없다. 오클랜드를 기준으로 최고 기온은 약 25℃, 최저 기온은 5℃정도이다.

통화- 뉴질랜드 달러는 보통 N$라고 표기하며 동전에는 5, 10, 20, 50¢, $1, $2짜리가 있으며, 지폐는 $5, $10 ,$20, $50, $100짜리가 있다. 이중에서 $50와 $100는 잘 사용되지 않는 큰돈이다. 한때 USD와 1:1 정도의 통화가치가 그린피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핵잠수함 파견 반대운동으로 인해 미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압박으로 현재는 USD의 절반 정도이다.

지방자치제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재정적으로 상당 부분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주의회(Regional Council) 11개와 지방자치지역(Territorial Authority) 67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회(Regional Council)

뉴질랜드의 주는 총 11개로, 북섬에 7개, 남섬에 4개가 있다. 북섬은 노스랜드(Northland), 와이카토(Waikato), 베이오브플렌티(Bay of Plenty), 호크스베이(Hawke's Bay),타라나키(Taranaki), 마나와투-왕거누이(Manawatu-Wanganui), 웰링턴(Wellington)이 있다. 남섬은 웨스트코스트(West Coast), 캔터베리(Canterbury), 오타고(Otago), 사우스랜드(Southland)가 있다. 지방자치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의원들이 선출한다.

지방자치지역(Territorial Authority)

뉴질랜드의 시·군은 최소 인구 5만 명 이상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지방조직으로서 12개의 시의회와 54개의 군의회로 구성된다. 지방의회는 3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지방세율조정, 지역개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보건위생, 건축허가를 담당한다. 세입은 해당지역의 토지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지한다.

뉴질랜드 의회(Parliament, House of Representatives)

의회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협조하며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 집행현황을 감사한다. 뉴질랜드 의회조직은 의장(Speaker), 부의장(Deputy Speaker),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정무장관(Leader of the House),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1) 의장

의장은 총선이 끝난 후 처음 소집되는 개회식에서 선출되며, 총독의 승인 후 확정된다. 의장은 회기 동안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 진행을 주재하고, 표결을 회부하고, 특권 저촉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질서 유지와 토론 규칙 준수를 포함한 권한을 행사한다.

2) 부의장

3) 상임위원회 의장

상임위원회 의장은 의회의 의결로 임명된다. 각 상임위원회 의장은 법률안의 각 조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되는 전체회의(Committee of the Whole House)를 주재한다.

4)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의장이 제청하고 총독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의사 규칙을 비롯하여 법률에 관해 의장과 의원들에게 자문하고 의사 진행 순서와 의사록을 포함한 제반 문서를 발간하고 정리한다. 또한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 안을 총독의 동의 절차에 회부한다.

5) 정무장관

정무장관은 의회가 극한 대립 상황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료 중 1인이 정무장관으로 임명되며 정무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야당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6)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조사하며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뉴질랜드는 상임위원회가 19개 있다.

대한민국과의 관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바로 승인한 우호적인 관계로 6.25 전쟁 때 참전 16개국 중 하나의 국가로 6,020명의 뉴질랜드 군인이 참전하여 전사자가 43명이 나왔다.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전화기, 기계 등을 수출하고 뉴질랜드에서는 대한민국에 목재, 육류, 축산가공품 과일 등을 수출하고 있다.

오클랜드

인구가 150만 여명, 면적이 1086km²로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다. 1840년부터 1865년까지 수도였으며 상공업의 중심지이다. 항구와 공항이 있으며 수도 웰링턴과는 철도로 이어져 있다. 타카푸나는 특히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

미션베이

미션베이에는 부드러운 백사장과 넓은 잔디밭이 있어 해수욕이나 썬텐, 피크닉을 하기에 모두 좋다. 바닷가에 있는 도로를 따라 까페와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고 서쪽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배스티안 포인트에 오르면 오클랜드 바다에 떠있는 섬과 요트의 풍경이 아름답다. 오클랜드 시티에서 미션베이까지 가는 길도 유명한데, 타마키 드라이브라고 불리우는 이 길은 동해를 따라 가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루트로, 자전거 전용차선도 있고, 조깅을 하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달리기에도 좋다. 타마키 드라이브를 따라 미션베이로 가는 길에 나오는 세비지 메모리얼 파크 역시 바닷가 전망이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뉴질랜드 초대 수상인 마이클 조셉 세비지를 기념하는 곳인 동시에 마오리 마라이가 있어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오클랜드 시내에서 동쪽으로 5분 정도 차를 달리다보면 미션베이로 가는 뉴질랜드의 유명한 해안도로 타마키 드라이브 도로에서는 매년 3월말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모금 달리기' 행사가 있다. 이 길에는 초입에서부터 포후투카와(pohutukawa) 나무들이 길 양편으로 줄지어 서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 빨간 꽃을 피운다고 해서 크리스마스트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와이토모동굴

와이는 물, 토모는 동굴을 의미한다. 와이토모의 동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곳으로 동굴이 처음 발견된 것은 1887년이다. 현지 마오리 부족장 타네 티노라우와 영국인 측량기사 프레드 메이스가 줄기로 만든 뗏목을 타고 지하 통로를 통해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발견했다. 거대한 석회암 지역으로 땅속의 또다른 신기한 세상을 볼 수 있으며 보트로 미끄러지듯 이동하면서 머리 위에서 무수히 많은 반딧불이가 환상적인 빛을 뿜어내는 동굴이다. 1906년 동굴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기도 했으나 1989년부터는 본래 소유자의 후손들에게 반환되어 현재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다.

아크로돔 팜

아그로돔농장은 면적이 160ha로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농장을 재현하여 관광객들에게 총 19종의 살아있는 양들이 등장하는 양쇼와 양몰이 개 쇼, 양털깎기 시범, 그리고 직접 무대 위에 올라가 소젖짜기 체험, 새끼양 먹이주기 체험프로그램이 있으며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답게 다국어로 제공되는 통역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한국어 번역도 있다. 관람 후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차량을 타고 넓은 목장을 구경하는데 사슴, 다양한 종류의 양, 소, 칠면조, 돼지, 말, 알파카 등을 볼 수 있다. 중간에 내려 양과 알파카 등의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하고 키위농장을 둘러볼 수도 있다.

로토루아 시청 및 의회(Rotorua District Council)

로토루아는 면적이 2,615㎢ , 인구가 약 7만 여명으로 마오리족 문화의 중심지이다. 로토루아는 43%가 농장, 41%는 숲, 8%는 호수로 이루어져 있다. 주민들의 연간 소득은 4만7천 달러로 연간 360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이다. 뉴질랜드 북섬의 중북부 오클랜드 남동쪽으로 약 200km에 위치하며, 로터루아 호수의 남서쪽 끝에 있다. 14개의 국립공원, 17개의 호수가 있고 여름에는 낚시 수상스키 수영 등 물놀이와 해상활동이 활발하다. 2007년에는 세계수상스키 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로토루아 호수는 수상비행기의 발착지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세계 3대 간헐천과 유황온천이 있어 관광·휴양도시가 발달했으며 마라톤 대회, 국제 경마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은 관광업으로 37.3%이고, 그 다음이 농업, 임업, 제조업이다. 1920년대부터 부근의 화산대지에 외래 침엽수의 식림사업이 진행되어 1938년 와이파에 뉴질랜드 최대의 제제소가 건설되어 목재 가공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로토루아 시청에는 약 400명 직원이 근무하고, 시장 및 부시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시장과 시의원이 전문경영인을 고용하여 운영을 맡기고 있다.

로토루아 시청은 시의회를 겸한 곳으로 의장이 시장을 겸하고 있다. 로토루아 시는 친환경 지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연공원 조성, 기반시설 관리, 청소년 문화사업, 교육프로그램, 소수민족까지도 포용하는 다문화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시청 앞에는 로토루아 거버먼트 가든(government garden)이 있어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크리켓 등의 운동과 산책 등 여가를 즐기고,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폴리네시안 노천 온천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로토루아는 지열지대 위에 있어서 고층빌딩이 없다. 최근 환경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목장 폐수 등 물 정화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지역개발 중 5%는 공원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곳의 정책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활기찬 도시, 일할거리가 많은 도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장 큰 목표는 “Tatau tatau We together”로 모두 같이 함께 가자는 뜻이다. 로토루아 시는 마오리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자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 원주민과 함께 발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마오리족은 로토루아 인구의 30%정도를 차지하며 정부에서 마오리부족 보존에 힘쓴 후 마오리족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호주의 에버리진 정책이나 미국의 인디안 정책과 달리 뉴질랜드는 마오리 문화를 인정하고 통합한 정책을 선택한 나라로 로토루아의 마오리족들은 이 지방의 마오리 문화를 알리는데 자부심이 높다.

레드우드 수목원(Redwood Grove)

약 40여년전에 조성한 인공수목원으로 세계 2차대전에서 희생된 뉴질랜드 병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레드우드 품종을 보내주어 심기 시작했다는 레드우드는 50만평의 면적에 아름드리나무들이 무성하며 특히 메타세콰이어의 경우 8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직경이 5m이상이고 높이도 80~120m정도 된다.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 때문에 일년에 1.8m씩 자랄 정도로 생육이 빠르며 보통 한국에서 50년은 자랄 크기의 나무가 이곳에선 25년이면 자란다. 우리나라보다 성장속도가 빨라서인지 거대한 고사리와 덩굴식물들로 이루어진 정글 같다. 쥬라기공원, 아바타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산책로는 임업시험장이 있는 수목원으로 비지터 센터에서 시작하며 루트가 6개로 나뉘어 있어 자신에게 알맞은 코스를 선택 할 수 있다. 산책코스는 빨간색 30분 코스에서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3시간30분, 검은색은 8시간 코스로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어서 갈림길에서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색깔을 보고 찾아오면 된다. 레드우드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붉은색을 띄며, 나무껍질이 잘 벗겨지는게 특징이고 곧게 자란다. 뉴질랜드의 고사리는 뒤쪽이 하얀 것이 특징이고 목본식물의 실버고사리로 뉴질랜드의 상징이다. 최상의 삼림욕장 레드우드에는 군데군데 웅덩이가 있는데 유황 성분의 간헐천이라 파란빛이 돈다. 쓰러진 나무의 가지가 나무처럼 자란 신기한 나무가 있다.

로토루아호수

로토루아 호수(Lake Rotorua)는 뉴질랜드 북섬 로토루아에 있는 호수로 표면적이 2번째로 큰 호수이다. 면적은 7,878ha에 이르며, 평균 수심은 불과 11m이고, 수량은 옆에 있는 타라웨라 호수(Lake Tarawera)보다 훨씬 작다. 로토루아 시는 호수의 남쪽에 있고 옹고타하(Ngongotaha) 마을은 호수의 서쪽에 있다. 이 호수는 타우포 화산지대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아직도 간헐천과 지열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로토루아 호수는 유황 함유량이 높아 독특한 황록색을 띠고 있다. 로토루아 호수 가운데 있는 **모코이아 섬**은 면적이 1.35 km2이며 호수 표면위에 180m 까지 융기한 종상화산(lava dome)으로 지열온천이 있다. 모코이아 섬은 마오리족의 소유로 뉴질랜드 환경보존국과 협력하며 운영 중이고 여러 종류의 새가 살고 있으며 관광의 목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코카코, 키위, 멸

종 위기의 새들백 (saddleback)을 포함한 희귀종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모코이아 섬은 마오리 타이아하 무예인 마우 라카우 (Mau rākau)의 훈련 장소로 이 섬에는 마오리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 할 수 있는 “히네모아와 투타네카이”라는 뉴질랜드의 가장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끝난다. 전설에 따르면, 히네모아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 아버지 족장 우쿠카리아를 피해 호수에서 섬까지 3.2Km를 투타네카이의 플루트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며 표주박을 튜브 삼아 수영해 가서 투타네카이를 만났다는 이야기이다. 포카레카레 아나는 바로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인데 우리나라에서 불리우고 있는 “연가“가 바로 이 노래이다.

거버먼트 가든

오클랜드 남동쪽 약 300여km 거리의 로토루아 호수 주변에 있는 영국식 전통 정원이다. 이 건물은 1840년대 마오리족과 영국간의 와이탕이 조약으로 인해 영국의 식민통치 시 최초의 영국식 시청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로토루아의 예술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버먼트 가든즈는 로토루아 중심에 있는 호숫가의 정원으로, 현지 마오리인들에게 전설적이고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닌 전쟁터였다. 1800년대 말, 현지 마오리 부족이 ″전세계인의 이익을 위해″ 이 땅을 정부에 기증하면서 정원이 조성됐다. 나무 중에는 몸통이 여러 개로 뻗은 일본 전나무, 특이한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등 거목이 많다. 1908년, 뉴질랜드 정부는 이곳을 남태평양의 온천 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 하에 튜더식 건축양식의 큰 온천장(Bath House)을 개장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온천객으로 붐비던 이 건물은 이제 박물관으로 바뀌어 그 당시 역사를 흥미로운 전시품으로 전해준다. 1930년대 초반에 화려하게 개장한 지중해식 블루 배스는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 세계 최초의 온천 중 하나. 블루 배스는 스파테라피 보다는 사교용으로 이용됐다. 거번먼트 가든즈 마당에는 유명한 레이첼 풀이 있는데, 블루 배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 풀 색깔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연못지대, 진달래 길, 아름다운 장미원 등이 있다.

데이 브레이크 시니어 데이 케어(Daybreak Senior Day Care)

매니저는 게일 에드워즈로 개인소유의 시설로 하루에 30~40여명이 참여한다. 로토루아 지역 사회에서 노인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일일 보살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시설 간 교통편은 무료로 제공되며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한 교통편은 제공하지 않는다.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고 마오리족 직원도 있다. 출장 간호사가 있고 약도 투여할 수 있다. 신청하면 새벽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야간시간에는 돌보지 않는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단이 제공되며 미용과 샤워도 제공한다. 하루 일과는 주로 다음과 같다.

운동- 수제 모닝 티- 보드 게임, 카드, 그룹 게임 또는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 활동- 점심 식사- 오후에는 연예인과 방문객 등이 방문- 차가 제공되며 홈 베이킹 제공- 집으로 돌아간다.

로토루아 스카이라인 곤돌라

로토루아 시내로부터 3km 떨어진 농고타하(Mt. Ngongotaha) 산자락에 위치해 있는 스카이라인 곤돌라는 해발 487m 에 있는 공원까지 운행을 하고 있다. 중심가에서 차로 10분정도 걸리는 5번 도로 변에 스카이 라인 곤돌라 탑승장이 있다. 곤돌라를 타고 올라간 정상에는 레스토랑, 기념품점, 카페와 스카이 스윙(Skyswing)과 루지(Luge)를 타는 곳이 있다. 루지와 곤돌라를 패키지로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다. 곤돌라를 타면 로토루아 시내의 전경, 로토루아 호수, 그리고 그 주변 모두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에덴동산(Auckland Eden Summit)

마운트이든(Mt. Eden)은 오클랜드의 남쪽에 있으며 높이는 196m이며 약 2만 년 전 마지막 폭발이 있었던 사화산의 거대한 분화구로 용암으로 뒤덮여 황량하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초지로 잘 가꾸어져 있다. 정상에서 오클랜드시를 조망할 수 있다.

테푸이아 지열지대 및 마오리 민속마을

뉴질랜드 최대 크기의 지열지대 테푸이아(Te puia) 는 마을의 끝에 위치한 마오리족 원주민 마을의 이름을 따서 와카레와레와(Whakarewarewa) 지열지대라고도 한다. 로토루아 지역은 1826년 이후 크고 작은 화산폭발이 수십 회나 발생한 곳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지대의 한 곳이다. 로토루아에는 약 500여개의 풀이 있고 대부분이 알칼리성 염화온천이다. 그리고 65개의 분출구멍과 7개의 간헐천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은 큰 분출과 폭발을 의미하는 '포후투 간헐천'(Pohutu Geyser) 이다. 간헐천은 바위틈으로 밀려 든 지하수가 뜨거운 지열(地熱)로 끓다가 수증기의 압력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폭발한다. 이러한 간헐천은 화산활동이 왕성한 일본이나 하와이 뉴질랜드 같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열 구멍에서는 머드팩의 원료인 머드풀이 지열로 인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희뿌연 증기가 유황냄새를 풍기며 솟아오른다. 옆으로 길다란 바위에 걸터앉아 한국의 아랫목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테푸이아의 간헐천을 보며 살아있는 지구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마오리민속촌에는 전시방법이 독특했다. 실제로 만져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땅위에 여름집과 지열을 이용하기 위해 땅 속을 파고 지은 겨울집 등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회의실과 전투용 카누 등이 보존되어 있고 공예관에서는 당시 마오리족의 생활용품을 직접 제작·체험해 볼 수 있다.

② 강서구 구정 및 의회 운영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정책건의

・공원 벤치 등의 기부로 주민 참여 및 방문객의 흥미 유발
공원벤치 하단에 기증자의 인적사항 기록- 지역민의 참여로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 수 있으며 특색 있는 벤치를 설치할 경우 방문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다.

・폐광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묶어 관광자원화
사업성이 없는 폐광을 이용해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묶어 관광상품으로 개발
강서구 내 소금창고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 이용에 관한 상세한 안내표지판, 벤치, 쉼터 등의 설치
레드우드의 체력에 맞는 다양한 코스의 둘레길 안내표지판

・랜드마크 조성으로 도시의 경쟁력 강화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랜드마크는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곳 개발 관광상품화
블루마운틴의 세자매 바위도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고
매쿼리포인트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망부석과 비슷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에는 환경문제에 관해서 자신들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차량 내 음식물 반입 금지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량 내 음식물 반입을 금하고 있다.

・관광지 잡상인의 엄격한 규제와 단속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에는 관광지에 잡상인이나 음식점이 없었으며 오로지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국가에서 관광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제 및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뉴질랜드의 교차로는 주로 회전교차로였는데 신호대기 시간이 없고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교차로 내 대형 교통사고를 막을 수는 장점이 있다.

・방문·체험형 관광상품의 개발
허준박물관 겸재미술관 등에 방문과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쓰레기통 설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설치해 거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자연환경과 습지 보존
외곽지역은 물론 도심 한가운데도 잘 보존되어 있는 공원과 습지들을 보면서 개발보다는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이를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강서구 관내 중소기업 등의 협동조합을 조직 운영하여 판로개척이나 공동판매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뉴질랜드 농장들은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하여 서로 돕고 있었다.

③ 기타보고사항

・ 뉴질랜드는 지진피해가 많은 지역이다. 연수중에 지진피해지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직 위	의원	소속 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성 명	박주선
여행국	호주, 뉴질랜드		여행기간	6박7일	

① 주요 방문지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

○ 호주 ’펜리스’ 시의회,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의회 두 곳은 특정 산업(관광)이나 환경(호수)을 기준으로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제한적 자치제(Limited municipality)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영국 내각제의 변형된 형태로 의회가 이루어져 있으며, 의회 의원 선출과정도 대한민국의 선거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대한민국의 의회와 비교하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제도의 차이점은 사전 배포된 자료로 확인하고 검토 할 수 있었다.

② 강서구 구정 및 의회 운영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정책건의

○ 시의회 2곳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특화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미리 준비해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호주, 뉴질랜드 의회와 대한민국에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선출 방식 등)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터디가 필요했다. 이를 통해 정치(정당)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 양로원 방문은 좋은 시도였으나 사전에 매니저와 독립된 공간에서 정책적 방향을 듣고, 위로 차원에서 몇몇 분들과 인터뷰를 시도해야 했었다. 양로원에 계신 분들의 사생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 향후 재방문 혹은 방문지 의회 의원들의 대한민국 방문을 통해 교류뿐만 아니라 세미나 형식의 정책적 논의도 고민해야 한다.

③ 기타 보고사항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직 위	의원	소속 위원회	보건복지	성 명	김 현 희
여행국	호주 , 뉴질랜드		여행기간	10월23-10월30일	

① 주요 방문지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

1. 호주 펜리스시티 방문
   강서구의회와 1995년 자매결연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펜리스의회에서 강서구의원들을 환영해주고 준비한 선물교환도 하며 다과를 함께 나누며 펜리스시티의 시책과 시스템 운영등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으며 시의회 투어도 할 수 있어 이모저모 둘러보고 관찰했다.
2. 로토루아시의회 방문
   로토루아는 총 인구 7만8천명이 살고 있는 소도시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임
3. 로토루아 DAY CARE 방문
   센터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모습이 평온해 보였고 행복해 보이셨다.

② 강서구 구정 및 의회 운영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정책건의

○ 오스트레일리아 면적이 774km 한반도의 35.052배로 인구 2.477만명 세계5위의 나라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블루마운틴이 먼저 떠오르는 국가이다. 호주는 기간사업으로 전략적사업과, 관광산업이 발달된 도시다. 강서구도 한강을 중심으로 허준박물관, 마곡첨단도시, 마곡 보타닉파크, 메디컬의료특구를 활용하여 오페라하우스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가 한국하면 강서구를 떠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서울은 도심에 자리한 남산과,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또한 서울 복판에 있는 경북궁, 덕수궁, 창경궁과 고풍스럽고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인사동을 비롯한 아름다운 거리가 관광도시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뉴질랜드 복지시설 - 출산, 육아 도움 주는 Plunket 서비스
   뉴질랜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는 실직자 가정의 어린이들과 퇴직한 노인들 등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③ 기타 보고사항